

# KREI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오년호 | 부연구위원  
oh.n@krei.re.kr

김태후 | 연구위원  
taehoo82@krei.re.kr

지정훈 | 전문연구원  
sancheonri@krei.re.kr

## 중동 위기 대응 EU의 농업 부문 국가보조금 지원과 시사점

### KEY MESSAGE

✓ 위기 시 면세유 지원은 유연화하고, 비료 지원은 적정 시비 유도  
중심으로 전환 필요

### SUMMARY

-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EU는 농업·어업·운송 부문을 대상으로 임시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연료·비료 추가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함.
- 우리나라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을 통해 지원함.
- 면세유 지원은 지원단가 한도가 있어 가격 급등 시 실질 보상비율이 하락하고, 무기질비료 지원은 과거 구매량 보전 방식으로 적정 시비 유도에 한계가 존재함.

# 01 EU 임시 국가보조금 지원 배경<sup>1)</sup>



## 지정학적 위기 전개

### I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에너지·공급망 충격

- 2026년 2월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가스·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연합(EU) 전반의 에너지·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함. 유럽중앙은행은 이번 위기가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과 경제성장 하방 위험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함.

## 중동 위기 대응 임시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 마련

### I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부문 지원

-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가격 급등 및 공급망 혼란에 취약한 농업·어업·운송 부문을 대상으로 중동 위기 임시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Middle East Crisis Temporary State Aid Framework)을 마련함.
- 중동 위기 이후 유럽연합 내 질소 비료 가격은 2024년 평균 대비 약 61% 상승하였으며, 농업용 연료 가격도 급격히 올랐음. 농업 부문은 계절적 생산 주기, 단기 조정 능력 부족, 선지출·후수의 구조로 인해 투입 비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취약 부문으로 분류됨.

### I 임시 국가보조금 지원

- EU 집행위원회는 농업 일괄면제 규정(Agricultu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농업 소액보조금 규정(Agriculture de minimis Regulation) 등 기존에 허용된 농업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이번 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기존 지원 규정을 보완하고자 유럽연합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에 근거한 임시 국가보조금 지원책이 마련됨.
- 어업·양식업 부문과 육상·해상 운송 부문도 연료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취약 부문으로 분류되었고, 임시 국가보조금 지원책이 마련됨. 다만, 항공 부문은 기존 지원 정책으로 이번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약 부문에서 제외됨.

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2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Middle East Crisis Temporary State Aid Framework, C/2026/2593.

## 02 EU 농업 부문 지원 주요 내용<sup>2)</sup>



### 지원 대상 및 적용 기간

- (지원 대상) 농산물 1차 생산 활동 종사 사업자
- 단, '26년 2월 28일 이전 경영 위기 상태 사업자는 제외(소규모 사업자는 도산 절차 미적용 등 조건 충족 시 예외 허용)
- (지원 적용 기간) '26년 3월 1일~12월 31일

###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직접보조금, 세제·납부 혜택 또는 보증·대출·지분 출자 등의 형태로 지급
- (지원액 산정) 실소비량 기반 방식 또는 소액 간소화 방식으로 산정 가능
- (실소비량 기반 지원액) 위기로 인한 연료·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의 최대 70% 보상, 가격 상승분은 관련 시장가격과 적용 가능한 과거 기준가격의 차이를 기반으로 각 회원국이 산정, 총 추가 비용은 수혜자의 현재 또는 위기 이전 최근 소비량을 바탕으로 계산
- (소액 간소화 지원액) 사업 규모·유형, 업종별 연료·비료 추정 소비량, 경작 면적 등 간이 지표를 활용한 보조금 산정, 지원 한도는 사업자당 5만 유로(약 8,500만 원)
- 농업 분야 지원액을 농산물 가격·수량과 연동하여 산정하는 것을 금지(연료나 비료의 가격·소비량 기준으로만 산정)
- 보증·대출 등 상환 의무 수단으로 지원 시(실소비량 기반인 경우) 추가 비용의 최대 70% 한도 내에서 상환 의무 없는 보조금 등으로 전환 가능(전환 없이 끝까지 상환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비용의 최대 100%까지 지원 가능)

### 선지급 및 사후정산

- 증빙서류 검토 이전 보조금 선지급 가능(단, 적용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적 기반 사후 검증·환수 절차 이행)

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2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Middle East Crisis Temporary State Aid Framework, C/2026/2593.

## 03 우리나라 농업 긴급 지원 사업



- EU가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해 임시 지원 규정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을 활용하여 농가 지원을 추진함.

###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sup>3)</sup>

#### I 지원 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중유·난방용LPG·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 (지원 적용 기간 및 지원 규모) 경유 '26년 3~9월(529억 원), 난방유 '26년 3·4·9월(94억 원)

#### I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매월 15일 이내에 전월의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구입량에 따른 지원금을 면세유 구입 카드(농협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 (지원액 산정)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면세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기준가격) 경유 1,070원/ℓ, 등유 1,112/ℓ, 중유 1,116/ℓ, 부생연료유1호 1,015/ℓ, 부생연료유2호 1,055/ℓ, 난방용LPG 1,197원/kg
- (지원단가 한도) 경유 138.4원/ℓ, 등유 143.9/ℓ, 중유 144.4/ℓ, 부생연료유1호 131.3/ℓ, 부생연료유2호 136.4/ℓ, 난방용LPG 154.8원/kg
- 단, 5월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단가 한도 적용 → 경유 176.2원/ℓ, 등유 183.2/ℓ, 중유 183.8/ℓ, 부생연료유1호 167.2/ℓ, 부생연료유2호 173.8/ℓ, 난방용LPG 197.1원/kg
- (신청 기간 및 방법) '26년 4월 20일~10월 31일 /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지역농협 방문 신청

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4. 27.),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6. 5. 29.),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면세경유 기준 138원/ℓ → 176원/ℓ)".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sup>4)</sup>

### I 지원 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연초에 배정된 보조금을 미사용한 농업경영체('24~'25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
- 단, 신규농업인, 작목전환 농가 등 보조금 배정이 신규로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의 표준소비량 기준을 고려하여 농가별 지원 금액을 산정 후 지원
- (사업 기간) '22~'26년(농식품부는 국제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을 지원 중)
- 단, 올해 4월 중동 전쟁 대응 추경 예산에 반영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금(115억 원)은 '26년 6월 8일부터 긴급 지원

### I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농협에서 농업인별 무기질비료 지원 물량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 (농업인별 지원 물량)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
- 단, 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구매 내역이 없는 농업인, 신규 농업인(귀농, 창업농 등), 재배면적 증가나 작목 전환으로 비료 추가 구매(95% 초과)가 필요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농협이 표준소비량 기준으로 지원 물량을 산출
- (지원액 산정)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지원(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 3. 16.),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이렇게 지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2026),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6. 8.), "농기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추경 115억 원 신속 집행".

# 04 시사점



## I 위기 시 면세유 지원의 한시적 유연화

- EU는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의 최대 70%를 보상해 가격이 오를수록 지원액도 비례해 늘어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정 지원단가 한도로 인해 가격이 급등할수록 실질 보상비율이 오히려 낮아짐. 5월 29일 한도 일시 상향에도 유가가 5월 수준으로 지속되면 보상비율은 면세경유 40%, 면세등유 62%에 그침. 정부가 한도를 일시 상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EU와 같이 위기 기간에는 지원단가 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EU가 위기 대응 기간(26년 3~12월)을 단일 기간으로 운영한 반면, 우리나라는 농기계용 경유와 난방유의 계절성을 반영해 지원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함. 난방유의 계절적 지원은 합리적이나, 농기계용 경유는 9월 이후에도 벼 수확기 콤바인 작업과 곡물 건조 등에 사용되므로, 위기 국면에서는 농기계용 경유의 지원 시기 제한(3~9월)을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1〉 기준가격 대비 월별 면세유 가격 비교

단위: 원/ℓ, %

구분		면세경유		면세등유	
기준가격		1,070		1,112	
지원단가 한도		138.4		143.9	
5월 29일 상향된 지원단가 한도		176.2		183.2	
2026년 3월	주유소 평균가격	1,294.0		1,240.9	
	인상가격의 70%	156.8		90.2	
	지원단가 (보상비율)	138.4	(62%)	90.2	(70%)
2026년 4월	주유소 평균가격	1,474.8		1,365.3	
	인상가격의 70%	283.3		177.3	
	지원단가 (보상비율)	138.4	(34%)	143.9	(57%)
2026년 5월	주유소 평균가격	1,509.9		1,408.3	
	인상가격의 70%	307.951		207.438	
	지원단가 (보상비율)	138.4	(31%)	143.9	(49%)
	상향된 한도 기준 지원단가 (보상비율)	176.2	(40%)	183.2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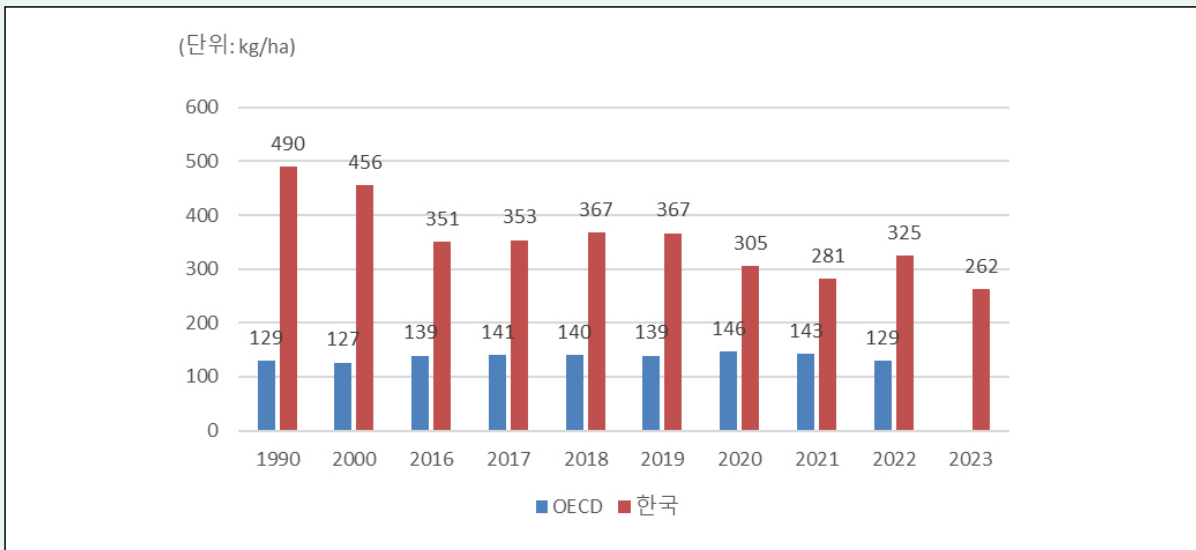
주: 지원액은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지급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4. 27.),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6. 5. 29.), “고유가상황 지속에 따라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면세경유 기준 138원/ℓ → 176원/ℓ)”; 오피넷(<https://www.opinet.co.kr/>), 면세유평균가격, 검색일: 2026. 6. 1.

## I 사후 가격보조에서 적정 시비 유도로의 전환

- 우리나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는 인상 차액의 80%를 보전해 EU(최대 70%)보다 보상 수준이 높고 단기 경영비 경감 효과가 큼. 다만 EU가 이를 한시('26년 3~12월) 조치로 설계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022년 이후 5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지원 물량은 농가의 최근 3개년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정해져 있음. 그 기준이 표준시비량이 아니라 농가의 과거 구매 실적에 맞춰져 있어, 적정 시비 유인이 제한적임. 국내 단위 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행 지원 방식은 적정 시비 확대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지원 산정 기준을 과거 구매량에서 표준시비량으로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미 신규·작목전환 농가에 표준시비량 기준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그 방식을 일반 농가로 확대하고 토양검정·시비처방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사용한 농가를 우대하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국내 및 OECD 평균 ha당 비료 소비량



자료: World Bank(<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Series/AG.CON.FERT.ZS#>), 검색일: 2026. 6. 15.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감 수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061-820-2275 gouksy@krei.re.kr  
내용문의 오년호 부연구위원 061-820-2268 oh.n@krei.re.kr

※ 「KREI 이슈+」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KREI 이슈+

제55호

### 중동 위기 대응 EU의 농업 부문 국가보조금 지원과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6. 6.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I S S N 2983-341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